핀테크 데모데이 in 호치민

축 사

2023. 9. 6.(수) 13:00

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 사이공 사파이어 볼룸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

김 소 영

1 인사말씀

안녕하십니까? 씬짜오(Xin chao).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.

먼저 호치민에서 **한국과 베트남**이 **공동**으로
핀테크 데모데이를 **개최하게 된 것**을 축하드립니다.

오늘 데모데이는
한국과 베트남의 **우수한 핀테크 기업**뿐만 아니라
양국의 금융회사 관계자분들도
함께 참석해주셨습니다.

바쁘신 와중에도
양국의 **핀테크 산업 협력**을 위하여 참석해주신
베트남 중앙은행의
쩐 진 끄엉(Tran Dinh Cuong) **호치민 부지부장**님을 비롯한
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또한,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
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영한 이사장님을 비롯한
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.

2 핀테크 데모데이 in 호치민의 의미

베트남과 핀테크 **데모데이의 인연**은
참으로 각별한 것 같습니다.

2017년에는 **하노이**에서 **핀테크 데모데이**를 개최하여
양국의 **핀테크 산업**이 **한층 가까워지는 기회**를 가졌고,

오늘 **호치민 데모데이**는
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
처음으로 개최되는 **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**입니다.

베트남은 2017년에
젊은 인구구조, 높은 경제성장률과 **디지털 보급률**로
핀테크 산업의 **성장잠재력**이
높다고 평가 받았었고,

* **인구구조**: 약 1억 명의 인구 중 평균 연령이 30세, 70%가 35세 이하의 청년
디지털 보급률: 인터넷 보급률 70%, 스마트폰 보급률 68% → **동남아시아 최고 수준**

이제는 전 세계에서
가장 뜨거운 핀테크 시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.

핀테크 이용자 수와 **시장 규모**가
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,
핀테크 분야에서 **유니콘 기업**으로 등극한 VNPay(VN페이)*와 같은
성공사례도 지속적으로 **출현**하고 있습니다.

* **이용자수**: ('16) 2.650만명 → ('21) 5320만명, **시장규모**: ('16) 7억$ → ('21) 45억$(간편결제기준)
* *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, 이용 회원수 약 1500만명 → **베트남 스타트업 중 두 번째 유니콘 등극**

핀테크 산업에 **'기회의 땅'** 인 베트남,
경제·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호치민에서
양국 핀테크 기업들이 가진 **우수한 기술과 혁신적인 서비스**를
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.

3 한 · 베 핀테크 기업의 성장 가능성

내외귀빈 여러분!

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전되는
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는
전통 **금융산업**의 **지형**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.

금융과 IT를 넘어
다양한 산업 간의 **경계가 모호**(Big blur)해지고,
산업간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나는

핀테크 산업의 **성장**은
양국의 **금융 산업**이 **글로벌 경쟁력**을 확보하는데
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

"손안의 금융"이라는 닉네임처럼
시간과 **공간**의 **제약**으로부터
자유롭다는 특성을 가진 **핀테크 산업**은
비대면으로 **서비스**를 **이용**할 수 있어
글로벌 진출이 다른 산업에 비해 **용이**하기 때문입니다.

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
새로운 것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
소비자 성향에 **적응**하며 **성장**해 온
양국 핀테크 기업의 **기술력** 또한
국제적으로 충분한 **경쟁력**을 갖추고 **있다**고 생각합니다.

특히, 베트남에는 **삼성, LG 등 한국 IT기업***들과
국내 금융회사**가 **다수 진출**하여

* **삼성전자** 베트남법인의 **베트남 총수출액 중 비중**: **17.5%** (삼성-650억$/베트남 전체 3718억$, '22년 기준)
** 국내 금융회사 **총 44개社 58개 점포 진출**(은행20, 증권8, 생보5, 손보5, 여전8, 자산운용23)

양국 핀테크 기업들이 **협력**하고 **경험**을 **공유**하기에
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.

4 맺음말씀

베트남에는
'**서로 사랑하면, 산을 넘어 고개도 넘고 강도 건넌다**'는
속담이 있습니다.

오늘 **핀테크 데모데이 in 호치민**을 통해

한국과 베트남의 핀테크 기업, 금융기관들이
네트워크를 구축하고 **상호 협력**하여

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는
세계적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합니다.

한국 정부도 오늘의 **핀테크 데모데이 in 호치민 개최**와 같이
핀테크 기업들의 **해외 홍보 기회**를
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또한, **해외 현지 정보**와 **해외진출 거점 제공**을 지원하고,
현지 금융회사 및 **해외 투자자와의 협업・매칭**을 **지원**하는 등

실질적인 **지원**을 통해
우리 핀테크 기업의 **글로벌 진출**을 돕겠습니다

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
다시 한번 감사드리며,
핀테크 데모데이 in 호치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깜언(Cam On).